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4일 수요일 음 3월 16일 (8물)

건강&생활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5℃, 낮 최고기온은 17-21℃로 예상된다. 제주 동·남부 해상에서 바다의 물결이 1.5-2.5m로 높게 일겠으니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자외선지수 높음 산물가능지수 낮음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and vis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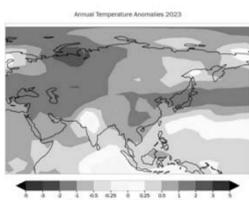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3/21℃
모레 흐림 14/21℃

월드뉴스

“아시아 온난화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

WMO, 해수면 온도 사상 최고

지난해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더 빨랐고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세계기상기구(WMO)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아시아 지역 연평균 지표 온도 분석도. 연합뉴스

WMO가 이날 공개한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연평균 지표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섭씨 0.91도 높았다. 1961~1990년 평균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섭씨 1.87도로 커져 가파른 온도 상승을 나타냈다.

아시아의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과 밀접한) 북서 태평양은 작년 연평균 해수면 온도가 기록상 가장 따뜻했다”며 “구로시오 해류와 아라비아해, 남부 바렌츠해, 남부 카라해 등지의 해수면 온도는 지구 평균 대비 3배 이상 빨리 따뜻해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아시아 연평균 지표 기온은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후 관련 재해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도 아시아”라고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신운경
보령신건강의학과의원장

“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는 것 같아요”라는 쓸쓸한 대답이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어울리는 사람들은 있지만 친구는 아니라거나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낸다는 이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많은 현대인이 갈수록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인다. 이렇게나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왜 우울, 불안, 공허는 늘어만 갈까? 아마도 존재란 연결된 관계이고, 이를 타고 흐르는 것이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의 표현이 관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우정의 기술

고여 있는 에너지가 병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른다.

현대 사회에 팽배한 물질주의와 능력주의는 감각적 쾌락과 끝없는 경쟁의 콜로세움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하지만 마음을 열고 나누는 일이야말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삶의 필수 조건이다.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대신하겠지만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받는 그리고 주는 관계의 기쁨은 인생이라는 바다의 소금과 같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학교는 직업을 얻고 돈을 잘 벌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기에 바빠 삶의 근간인 우정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관계인데 가장 서툰 것 역시 인간관계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마음은 혼자서 수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훈련되는 것이다. 훈련되지 않은 외로운 마음에는 타인과 세상이 자신을 헤칠지 모른다는 불신이 차오른다. 그래서 의지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 여기며 더욱 단단한 갑옷을 입는다. 가장 필요한 것, 즉 타인과의 친밀한 접촉이 두려워 회피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정치철학자 김만권이 따르면,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해 고립된 이들은 깊은 절망과 자기혐오의 우울을 앓는데 이런 고통은 결국 울화의 분노로 전환되어 세상을 향하게 된다고 한다. 살아있으나 유행처럼 존재하는 이들의 분노가 무자비한 ‘몰지마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고개 끄덕여지는 통찰이다. 언제부터인지 ‘윤리’가 계몽주의 시대의 낡은 관념처럼 여겨지며 매력

을 잃어갔다. 하지만 윤리는 관계의 ‘도(道)’인데, ‘길’ 없는 삶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두렵고 황량해진다. 선과 악은 우리 내면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 내적 세계는 혼자서 곱씹어 쌓아 올리는 상아탑이 아니라 주변의 타자와 일상에서 주고받는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는 무엇이다. 인간의 자율성경계 역시 타자와의 상호작용 중에 일어나는 상호조절의 기점으로 자기조절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관계가 존재’임은 생물학적 근거마저 있는 셈이다.

관계의 핵심은 ‘내가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다. 그리고 이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본질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관점과 행동에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일 것은 그 무엇보다 우정의 기술이다.

열린마당

AI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기기



박정한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전 세계에서 뜨거운 화두는 AI(인공지능)다.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학습 방식에 큰 변화가 없던 교육 분야에는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종이책 교과서에는 없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평가 문항, 쓰기, 검색 등과 같은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들이 다양하다. 학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수준별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반면 부작용을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겐 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수업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습이 이뤄지기보다 검색에만 의존해 깊은 사고나 기억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보면 디지털과 아날로그 교육 방식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 예정이고, ‘제주온라인학교’가 9월 개교되면 필요한 수업을 원격으로 들을 때 스마트기기는 절실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도 중학교 1학년에게 드림 노트북을 지원했다.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구축, 유해 정보 차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 중이다.

이 모든 핵심에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의 업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으로의 설계를 담고 있다.

제주 그린스팟 혼디해요



김민아
제주도청 산림복지과

며칠 전 에월을 우수암리에 위치한 원자네 꽃밭을 다녀오면서 제주 그린스팟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원자네 꽃밭은 강원자 할머니께서 직접 조성한 정원이다. 할머니는 어린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며 원자네 꽃밭을 만들어 가신 지 2년 가량 지났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매해 측백나무, 칸나, 국화류 등 다채로운 식물을 심고 가꾸고 계신다. 눈을 채우는 풍경이 마음에 채우듯이, 원자네 꽃밭 주변을 둘러보면서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마

음이 충만해지는 느낌이었다.

위와 같은 제주 숲 정원 조성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스핀 지처럼 바로 흡수하는 그린 카본(green carbon)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원자네 꽃밭처럼 애정을 가지고 자신만의 정원을 만드는 일이 지구의 과거·현재·미래 녹색공간을 연결하는 작은 발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됐다. 많은 분들이 제주 특색이 담긴 녹색공간을 주제로 나무와 꽃들을 심어 ‘제주 그린스팟 혼디해요’ 콘텐트에 공모해 보는 건 어떨까? 오는 5월 31일까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정원을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수상작은 소정의 상품권 지급과 함께 향후 제주 숲 조성 홍보자료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훗날 도민들의 제주 그린스팟 이야기들이 제주 숲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해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Advertisement for '감귤 신제품 분양' (Citrus New Product Distribution) for 2024, featuring various citrus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감귤묘목' (Citrus Saplings) listing various types and sizes of saplings available for purchase.

Advertisement for '2022년 정부공식 무명묘 공급업체 선정' (2022 Government Official Nameless Sapling Supplier Selection) listing various citrus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삼육두유 꿀잠' (Samyuk Soybean Milk Honey Sleep) featuring a product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